

특별기획

“보석산업 활성화 최선”

호남통계청 군산사무소 찾아가는 통계교실 ‘호음’

군산사무소가 선유도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통계교실을 열어 호음을 얻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군산사무소(소장 황조연)가 직원들 재능기부 차원의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통계교실을 운영해 호음을 얻고 있다.

지난달 27일 군산중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자유학기제를 맞아 진로체험이 필요한 관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선유도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통계교실을 열어, 통계를 접해 볼 기회가 적은 도서지역 학교에서 통계교육을 통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했다.

황조연 소장은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관내 학생들에게 통계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나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등 산업 현장 추진 현황 점검

정헌을 익산시장은 13일 오후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고 있는 주얼리 산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 시장은 먼저 삼기면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서 구축된 주얼리직접산업센터,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등을 둘러보고 사업 설명을 들었다.

올해 6월 준공한 ‘주얼리 직접산업센터’는 현재 총 45실(공장 37실 상가 8실) 중 21개 기업 34실이 입주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다.

이들 업체 중에는 기업규모를 키워 향후 주얼리 단지 분양을 계획하는 2~3개 업체도 입주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에 완공한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주얼리협회 동호회에 민간 위탁 중인 곳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주얼리 관련 장비를 갖추고, 각종 연구 활동과 도금 생산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주얼리단지 내 투자 중인 9개 주얼리기업의 지원시설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후 정 시장은 왕궁지역에 조성 중인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살피고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왕궁면에 신축 중인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3억 원을 투입하여 아파트형공장 26개실과 디자인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한다. 디자인, 가공 판매 및 관광기능 집적화로 귀금속보석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익산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이다.

지난 7월 착공하여 콘크리트 파일을 시공하는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층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정헌을 시장은 “보석 산업은 익산의 가치를 만들어온 브랜드다. 민선 6기에도 익산의 보석 산업이 지역경제를 활력원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며, 익산시도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장려상 수상

2016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 군산시 구암역시공원과 구암로(군산 IC~호덕교차로)의 가로수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녹색도시 우수사례는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응모를 거쳐 전문평가단이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를 통해 도시숲·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숲의 기능이 발휘 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을 선정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는 노후화된 한전사택부지를 매입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역사문화가 깃들여 있는 3기운동 기념부지를 특색 있는 무궁화동산으로 조성했다.

또 주요 관문에 위치한 구암로 가로수는 나라꽃 무궁화를 심어 나라사랑 및 호국선열에 대한 의미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해 평가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채정룡)는 13일 은파호수공원에서 2016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군산시와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후원으로 기획된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유관기관, 봉사단체, 학교, 지역 공공기관 등 23개 기관과 13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과 함께 청소년의 잠재된 가능성을 개발시켜 창의적이고 역량을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시지각협응장애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화재예방·연기소화기 체험, 혈액형선별 체험, 학교폭력캠페인, 구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의 활동들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 보행자 교통사고 대폭 감소

전년대비 29.3%... 교통경찰 활동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집중한 결과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2016년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29.3% 대폭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군산경찰이 16년 교통경찰 활동 목표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로 정하고 교통경찰 활동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96회, 강연 74회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보행자 교통사고 유발 행위인 신호위반 1,591건, 과속 42,341건, 무단

횡단 613건을 단속하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6년 1월에서 10월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3건으로 전년(273건) 대비 29.3%(80건) 감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전년대비 45.5%(5명) 감소, 보행자 교통사고 부상자는 198명으로 전년대비 28.7%(80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이 발표한 16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율(22.5%)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김동봉 서장은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였으나, 16년 한 해 교통경찰 활동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및 전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향후에도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경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간담회 · 신규위원 위촉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에서는 최근 익산경찰서 5층 대동마루에서 익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정기 간담회 및 신규위원 위촉 행사를 갖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 논의와 치안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신규위원 9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중 서장, 신규위원 9명, 보안협력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김성중 서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모두의 역할”이라며, 보안협력위원회의 정성어린 협력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민·경 협력치안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 사회정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 위촉된 신입 위원 이모(35) 씨 /익산=장왕원기자

는, TV 및 언론 매체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던 중 이렇게 보안협력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하여 안정적 정착을 위해 봉사활동을 같이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보안협력위원회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중 서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모두의 역할”이라며, 보안협력위원회의 정성어린 협력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민·경 협력치안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 사회정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 위촉된 신입 위원 이모(35) 씨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 시청직원 대상 정부3.0 사이버교육 실시

익산시는 지난달 5일부터 총 20회에 걸쳐 행정자치부 정부협업시스템 ‘나라음’을 활용한 정부3.0 사이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나라음을 활용하여 회의 문화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정부 3.0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20회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정부 3.0에 대한 이해’, ‘정부3.0 브랜드과제 국민디자인’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1,400여 명의 익산시청 직원들은 나라음 영상회의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정부3.0에 대한 이해와 직무활용도를 높여 스마트 행정, 효율성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 옹포 구절초 보러오세요

옹왕사·금강정 중심 도로변에서 예쁘게 자라

옹포면에 아름다운 낙조와 구절초가 관광객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산과 들 강이 어우러져 이전부터 익산시 관광의 메카로 통했던 옹포면의 낙조는 이전부터 유명했다. 그 가운데도 요즘 가을 저녁에 금강 수평선에 드리워진 낙조는 강변에 서서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에 아늑함을 안겨 주고 있다.

옹왕사에 서서 낙조를 지켜보는 관광객들은 한 걸 같이 이구동성으로 옹포면이 가진 이와 같은 아름다움에 감탄을 연발하고 있다. 금강이 옹포에 안겨주는 천혜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옹포면의 노력 유명했다. 그 가운데도 요즘 가을 저녁에 금강 수평선에 드리워진 낙조는 강변에 서서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에 아늑함을 안겨 주고 있다.

최근엔 옹포면장은 “앞으로도 옹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옹포면 주민 박모(52) 씨는 “옹포면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내가 살던 고향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느낀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최근엔 옹포면장은 “앞으로도 옹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경기침체 여파 3분기 군산지역 수출입 모두 급감

경기침체와 대기업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3분기 군산지역 수출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세관(세관장 이범주)에 따르면 3분기 군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한 8억4700만불, 수입은 8.6% 감소한 7억6600만불을 기록했다. 또한 대외무역수지는 전년 동기대

비 49.8% 감소한 7100만불로 적자 기록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산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선박과 자동차 실적은 현대중공업(주), 한국자엠(주)의 수출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1억8200만불), 40%(1억7500만불)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은 선박(1억8200만불),

자동차(1억7500만불), 기계류(1억3200만불), 유기화학물(8700만불), 무기화합물(8100만불) 순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곡물(1억9000만불), 철강(9200만불), 사료(7500만불), 펄프(5900만불), 자동차(3000만불) 순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농기센터, “이달 말까지 보리파종 마쳐줄 것”

군산농업기술센터는 맥류의 안전한 월동을 위해 이달 말까지 보리파종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보리와 밀은 겨울나기 전 5~6개의 잎을 확보해야 안전하게 생육할 수 있다. 종자를 일찍 파종할 경우 월동 전에 어린 아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고 늦게 파종할 경우 어린잎이 저온에 노출되어 얼게 되어 생육이 늦어져 품질이 좋지 않거나 수량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군산지역은 이달 말일까지 파종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젓은 강우 등으로 파종시기를 놓쳐 늦빠림 할 경우에는 늦어도 내달 10일까지 파종하고, 대신 종자량을 20~30% 늘려 파종하는 것이 수확량 확보에 유리하다. 파종기에 비 예보가 있을 경우 포장 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배수골과 배수로로 미리 확보하고, 파종이 끝난 포장은 물이 잘빠지도록 해야만 습해를 예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종자는 정부 보급종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반종자를 사용할 시에는 3년마다 갱신하고 미소독 종자는 반드시 정밀소독을 실시해야만 감부기병, 줄무늬병과 같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군산시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식행정과 지식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공모전이며, 행정자치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행정 상으로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지식포럼인 세계지식포럼 행사와 함께 개최된다. 시는 민선 4·5기 동안 ‘풍·화·격’을 갖춘 동북아 명품도시를 꾸준히

시정 핵심전략으로 삼아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노후유를 축적하고, 일 잘하는 스마트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민선 6기 이후에는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식행정을 더욱 활성화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